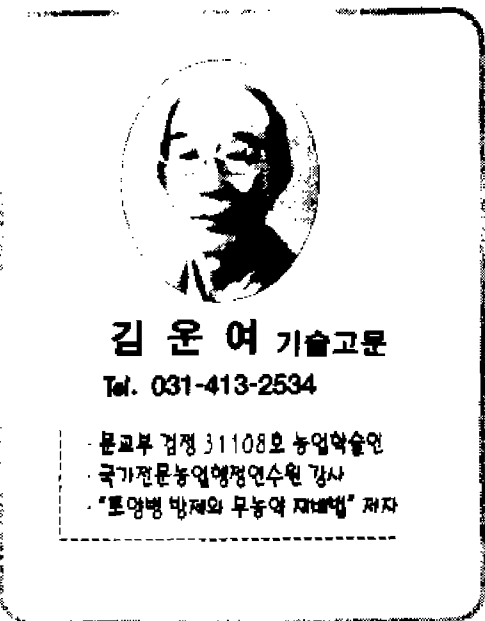


유기질비료란 무엇인가? ③

시설의 과채류재배시 알아야 것은?



옥수수 등의 녹비작물을 퇴비대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아...

두번째는 옥수수녹비의 전체량은 토양 유기물 5톤에 해당하므로 토양의 물리성 작용이 좋아지고 연작의 피해도 막아주는 효과도 높다.

2. 옥수수를 토양에 로타리한후 1주일 지나서 금수강산 260kg(1단보당)그 위에 살포하고 다시 로타리한 후 물을 흠뻑 준다.

3. 토양관수가 끝나면 토양 전면에 비닐을 덮고 태양열 처리에 들어간다. 처리기간은 15일 정도이며 시설을 밀폐하므로 이때의 시설내 온도는 70~80℃에 이르며 땅속의 온도도 60℃이상 보존된다.

태양열 처리의 효과는 병해충이 없�고 잡초의 발생도 억제된다. 특히 토양병이나 선충이 발생한 시설의 경우 이의 방제효과가 특히 크다.

4. 딸기의 정식은 태양열처리가 끝난 후 10월초에 한다.

지면 15cm의 두께씩 5단을 쌓는다. 1단씩 쌓을때마다 석회수를 충분히 준다.

석회수는 작업이 시작되기전 반드림통에 석회 20kg을 타서 석회를 사전에 만들어 두었다가 쓴다. 이렇게하여 작업이 끝나면 밧장 위를 두텁게 덮고 부숙시킨다. 부숙기간은 25일 정도이다. 이것이 1차 부숙이다.

2. 1차 부숙기간 25일되면 덮은 것을 베끼고 볏짚 전체를 뒤집어 었는다. 뒤집을때 수분이 없으면 다시 물을 주면서 작업을 한다. 작업이 끝나면 다시 덮고 25일 정도 다시 재부숙시킨다. 재부숙이 끝나면 그대로 잘 보관하여 정식 때에 사전 밧저름한다.

3. 정식때는 부숙밧짚에 금수강산을 100평당 100kg을 섞어서 정식 25일 전에 미리 토양에 시비해준다. 생리활성비료는 발효시키지 않은 비료이므로 토양 속에서 분해할 때 가스가 발생하여 뿌리를 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방을 위해 미리 시비해 두는 것이다.

4. 정식후 45일이 지나면 첫 추비에 들어간다. 추비는 작물의 재배기간에 따라 수확이 끝날때까지 3~4회 하며 추비요령은 다음과 같다.

추비는 과수와 같은 표토시비와 비닐멀칭의 경우 액비를 쓴다. 액비는 금수강산 100kg, 황설탕 2kg, 찌모젠 2kg을 물 600

시설고추와 같이 가을에 수확이 끝나는 작물의 경우

가을에 수확이 끝나고 다음해 3월경에 정식하는 작물의 경우 가을이후 3월까지의 기간은 기온이 낮은 겨울기간이 되어 녹비작물 재배는 불가능하다. 이경우 녹

**추비로 사용하는 액비는 금수강산 100kg, 황설탕 2kg, 찌모젠 2kg을 물 600ℓ를 고무통에 넣고 물을 채운후, 여름철 20~30일 겨울철 30~40일 정도 발효시켜서 쓰되, 땅속 관수용 호스로 흘리는 액비 20ℓ씩 지하수와 섞어 200평 정도에 시비한다**

비대신 밧짚을 이용한다. 밧짚은 정식때까지 사전에 반부식시켜 보관해준다. 특히 밧짚의 경우 고추에 대한 탄저병 방제 효과가 대단히 높아 일석이조이다.

1. 단보당 밧짚을 375kg을 잘게 썰어놓고 물을 흠뻑준다. 관수한 물이 거의 빠

ℓ를 고무통에 넣고 물을 채운후 여름철 20~30일, 겨울철 30~40일 정도 발효시켜서 쓰되, 땅속 관수용 호스로 흘리는 액비 20ℓ씩 지하수와 섞어 200평 정도에 시비한다.

**시설재배는 딸기와 같이 봄에 수확이 끝나고 가을에 정식하는 계통과 또한 가을에 수확이 끝나고 봄에 정식하는 시설고추와 같은 계통 등 시설 과채류는 이와같이 재배법을 두 계통으로 나눈다.**

딸기와 같은 봄에 수확이 끝나는 작물의 경우

2005년 1월 1일부터 인증법이 변경되면서 공장형 축분퇴비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며 자가생산퇴비도 유기사료를 45% 혼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작물은 퇴비사용 대신 옥수수의 녹비작물로 퇴비를 대신한다.

재배방법은 딸기의 수확이 끝난 후 조생종은 5월 상순, 중생종은 5월 하순, 만생종은 6월 초순 녹비용 옥수수를 파종한다.

1. 옥수수는 시설 200평당 6ℓ를 파종하며 8월 중순경이면 2m이상 성장하므로 이때 전량 잘게 잘라서 퍼놓고 로타리하여 묻는다.

옥수수녹비의 사용효과는 첫째 토양미생물의 활성권이 일반토양보다 6배 이상 증식되고 또한 방선균속의 길항균은 항생물질인 마이신올 생성하여 토양병해를 억제시킨다.

100년만의 무더위 예상 빛나기 저온피해 대비를...

100년 만의 무더위는 없다. 미국 항공우주국(나사)의 예초 예상과는 달리, 올 여름 우리나라에는 100년만의 폭염이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여름철 중반에는 이상저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여름철 계절예보"에서 여름 초반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으로 고온현상을 보이겠으나, 중반에는 차가운 오호츠크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저온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또 여름후반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울라와 평원과 같은 무더위가 있겠지만 대기 불안정에 의한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6월 평균기온은 평년(16~23도)보다 높고 7월은 평년(19~26도)보다 낮으며 8월은 평년(19~27도)과 비슷할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다.

장마는 6월 20일경 제주도를 시작으로 25일경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7월 초순에 일시 소강상태를 보였다가 하순에 물러갈 것으로 내다봤다. 태풍 발생 수는 평년(11~12개)과 비슷하고 여름후반에 평년과 비슷한 두세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했다.

따라서 금년의 기상은 사상 유례없는 저온 피해가 예상되나 미리미리 사전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예방책으로는 자연자재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전준비 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를 바란다.

속담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말이 있듯이 사후 약방문이 아닌 사전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자연적인 재난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극복하여 어려운 농업농촌에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기농업인들의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 1면에서 이어짐

유기농시론 - 친환경유기농산물 유통패턴의 변화를 선도해 나가자!

60년의 그린투어리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폴란드나 스위스 등의 유럽제국의 국민들은 매주 금요일 오후부터 토·일요일엔 거의 유기농업 실천농장을 방문해 유기식품들을 먹고 농촌생활을 즐긴다.

◆농촌에 최소한으로

5거리의 중심함을 꾸며나가자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주 5일 근무가 실시되면서 1시간 주말결연운동 또한 활성화됨에 따라 구미제국에 못지않은 도·농 녹색교류가 활발히 전개될 경우를 상정해 본다면, 도시의 소비자들을 여러분의 마을로 끌어들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많이 준비해 나가는 노력이 필수적인 성공의 열쇠가 될 것 아니겠는가?  
최소한 5가지 이상의 즐길 거리를 확보토록 연구해 보기도 하면,  
①머거리: 다양한 친환경유기농산물과 함께 산나물 등의 자연식품, 채소류 종류를 50종이상 마을주민들이 배분하여 재배하는 등  
②살거리: 귀가시에 사갈 수 있는 토속 상품이나 절임채소, 김치, 된장, 고추장 등 친환경유기농산식품류  
③알거리: 역사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유물이나 전설, 전통민속, 토속음식 만드는

법 연시, 민요나 고전음악 등을 들려주며 오감으로 온고지신을 느끼도록 하는 시설  
④놀거리: 전통도구를 활용한 투호, 제기 차기, 말이나 소타기, 옷놀이, 자치기, 널뛰기, 그네뛰기 등 설치 제공  
⑤힐거리: 민박, 소형공원, 마을회관의 마당과 실내와 같은 가족단위 놀이공간, 소형민속박물관과 휴게소 등 마련  
⑥볼거리: 지역축제정보, 마을 안길을 정감있게 꾸미고 이웃마을과의 경계에 특정 나무를 심기, 거리의 전통이름 찾기 등  
⑦할거리: 농촌에 와서 해볼 수 있는 봉사사업, 지역가꾸기에 동참시키기, 이영영기, 짚소쿠리 만들기, 대나무바구니 만들기, 비영리적인 사회공헌활동 등을 들 수 있겠는데, 이들 중에서 4~5가지만 확보해 놓아도 많은 도시소비자를 불러들일 수 있을 것이며, 이에따라 유기농산물의 유통 또한 Face to Face로 전량판매할 수 있는 직거래유통체계도 확립되어 갈 것으로 본다.

특히 인터넷판매도 잘하고 있는 회원들께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수위의 농가들을 독려하여 친환경유기농업 실천과 함께 공동참여에 의한 직거래 활성화의 길을 열어가는데 모두의 지혜를 모아 나가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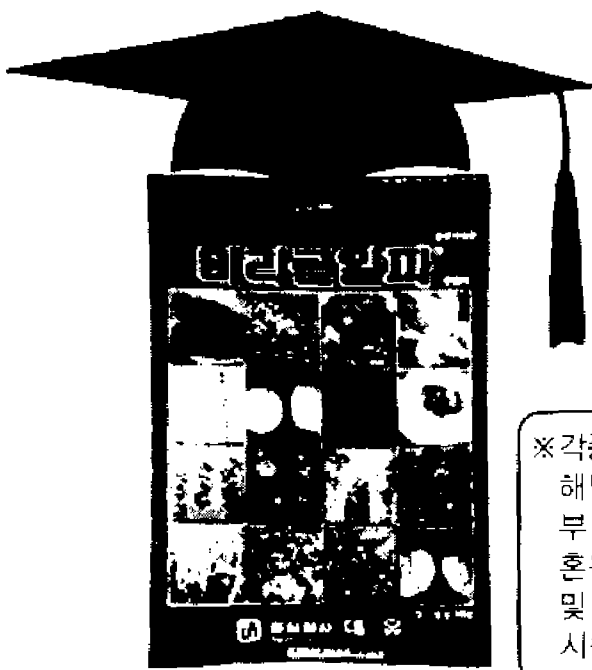
◆대우제품을 꼭 확인하시고 유사물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품질은 좋은데 소비자 가격은 왜 이렇게 싼까?

1. 농업인 누구나 사용하며 효과와 상품명이 너무 많이 알려져 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가 없다.
2. 판매상 상호간에 판매가격 경쟁이 치열하다.
3.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4. 기업어윤 환원차원에서 (주)대우에서 원가로 공급한다.
5. 나르겐·마리근·부리오 등의 (주)대우제품을 찾으면 타회사 제품을 권장한다.
6. 농업인의 필수품이며 양심적인 사장님들만 판매하며 본인 과수원이나 논밭에는 (주)대우제품만 사용한다.

※시기에 맞추어서 대우제품을 구입 사용하시면 각종 병해로 인한 농약살포횟수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역시 품질 좋고 값싸고 효과 좋은 『나르겐·부리오·마리근』이 최고야!!”



※각종 병해충 방제시 해당농약에 나르겐 부리오·마리근을 혼용살포하면 치료 및 회복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인삼농약**

**나르겐** 수용제 액제

**부리오** 수용제

**마리근** 수용제

농약으로 사용되지 않는 각종 생약성 치료제 및 예방

약효는 두배로!! 경비는 절반으로!!      부리발달속진!! 활력증진!!      농림부고시 친환경 키로산물규격준!!      초강력 전천후 미생물제제!!

**대우뉴소크·대우시나** 액제      **대우부리나라·세부리나** 액제      **대우키토산·대우키토백** 액제      **대우블로토·회춘토** 수용제

Since 1977  
**대우**  
대우식물영양연구소  
대우농약화학연구소  
대우화학분석시험연구소  
대우이화분석시험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동 31-19번지 우로3동12층 (02)556-6293